

생각하는 길

The Thinking Way

마태복음 7:12-14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0월 14일 설교

¹²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 ¹³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¹⁴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다수의 힘

어떤 석유 재벌이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입구에서 베드로가 자료를 보더니 못 가게 막습니다. 자격은 되는데 석유 쪽은 이미 자리가 다 찼으니 부득이 지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벌써 여러 명 갔대요. 난감하지요. 그 사람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천국에서 석유 계통의 사람을 하나만 지옥으로 보내면 자기를 넣어주겠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아, 빈자리가 생기면 못 넣어줄 이유가 없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알겠다 하고는 천국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방금 지옥에 석유가 터졌대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나와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남보다 먼저 가야 때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자 방금 고함을 지른 그 사람도 갑자기 지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얼른 뛰어가 잡았습니다. “천국에 자리가 났는데 자네 지금 어디 가나?” 그랬더니 “지옥에 유전이 터졌다 하잖아요?” 하면서 얼른 놓으랍니다. 베드로가 “그건 자네가 만든 헛소문이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그렇긴 한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는 걸 보면 정말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뿌리치고 지옥으로 줄달음을 치더랍니다.

지어낸 이야기지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천국 열쇠를 괜히 받아가지고는 지금도 천국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낸 이야기치고는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요점이 뭘겠습니까? 군중심리, 부화뇌동, 이런 것도 되겠지만 핵심은 숫자의 힘, 곧 ‘다수의 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뭘 하면 웬지 거기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낸 소문이지요. 백 퍼센트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때를 지어 달려가는 걸 보는 순간 그건 생각이 안 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간다면 분명 뭐가 있을 거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른 누가 진짜 정보를 준 건 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소문을 낸 나머지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다수의 힘입니다. 모이면 힘이 됩니다. 많을수록 힘도 커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당대회라는 걸 하지요? 그렇게 모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힘이 나지만 밖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당깁니다. 어느 당이든 전당대회 직후에는 지지율이 올라가지요.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이 사람 모이는 자리에도 적용됩니다. 교회도 그렇다 했지요? 교회 크기가 곧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 같아서 왔다가는 교인이 참 많지요. 큰 교회는 안 그렇답니다. 주일학교도 좋고 어른 프로그램도 많고 선교사업도 많이 하고 하여간 좋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정작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교회의 규모 그 자체에 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이 한 자리에서 찬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 감동의 도가니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겠지만 다수의 힘이 주는 감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 여긴 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잘못될 가능성은 설마 없겠지,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나도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그런 생각이 참석한 사람들의 의식 저 아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ere is safety in numbers.* 숫자에 안전이 있다, 수가 많으면 그만큼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다수가 하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게 안전하다는 말이지요. 우리말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남들하고 섞여 둥글둥글해야지 나 하나만 튀어나왔다가는 정 맞는다, 봉변을 당한다 그런 말이지요.

수가 많을수록 안전하다. 이걸 누구나 인정하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만든 정치제도 가운데 가장 앞섰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뭘까요? 다수결이지요? 어느 쪽이 수가 많은가, 이게 기준입니다. 인격도 외모도 필요 없습니다. 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다수가 언제나 힘을 쥐기 때문에 소수는 다수를 따라야 됩니다. 다른 후보를 찍은 사람도 일단 누가 당선되면 당선된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들 하시지요? 직접 살 때는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 하는데 안 보고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른 사람 의견을 봅니다. 웬만한 물건에는 이른 바 상품평가가 붙어 있습니다. 써 본 사람들이 좋더라 안 좋더라 하면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 평점에 언제 신뢰가 갑니까? 사람 수가 많을 때 신뢰가 갑니다. 와, 정말 좋아요 하고 썼는데 평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면 물건 파는 사람하고 그 사람 동생이 쓴 건 지도 모르지요. 어떤 경우는 물건을 사고 실망한 사람이 저만 속을 수 없다 해서 물건이 좋다고 가짜 평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참가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적어도 물건 하나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수가 많을수록 안전하다. 이거 학문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어느 분야입니까? 통계학입니다. 이거 참 대단한 학문입니다. 수가 많을수록 정확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라는 걸 하는데 표본조사를 합니다. 실제 투표할 사람보다 훨씬 적지만 그런데도 꽤 정확합니다. 한 사람 조사해 놓고 오바마 당선 가능성 백퍼센트, 하면 사람들이 웃겠지요? 그런데 수십 명으로 많아지면 상당히 그럴 듯해지고 천 명 정도만 돼도 아주 정확한 예상치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

다수가 믿음직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통계학을 잘 배워 그런 건 아니겠지요? 다수를 따르고 싶은 마음, 이거 사람 본성에 속한 겁니다. 좋은 본성이 아니라 안 좋은 본성, 곧 죄에 물든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따른다는 건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수를 따르겠다 하는 그 마음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 특히 다수를 이루는 그 사람들에게 무게 중심이 가 있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 매를 대는 게 좋을까 안 대는 게 좋을까, 매를 대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자료도 찾아보고 깊이 연구하면서 생각하기보다 일단 남 생각을 먼저 봅니다. 양쪽 입장을 몇 사람이나 추종하는지 살펴봅니다. 그것도 자료의 일부겠지만 그것만 보고 맙니다. 나는 생각을 안 합니다.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면 그 소식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 사람 인격이나 경력도 모르고 정책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면서 그저 지지자가 많아진다 하니 나도 그 사람 찍어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남 생각이 내 생각은 아니지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좋지만 내가 해야 할 생각을 남에게 미루고 판단까지도 남의 판단을 따라가는 건 겸손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쉽게 말해 무책임입니다. 그러면서도 생각 안 하기로 한 결정도 결정이니까 마치 생각도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자유롭게 한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건 골치 아프니까 외면해버리고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다수가 택하는 걸 나도 고르겠다는 말입니다. 쉬운 인생이지요.

한 마디로 사람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중요한 한 증거가 바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죄가 가져다 준 아주 못된 선물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닮게 만드셨습니다. 생각할 능력, 판단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정보나 환경 같은 외부의 영향도 받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을 줄 알지만 마지막 판단은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내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이 해 놓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사람도 그냥 동물로 만드시지 왜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왜 또 만드셨겠습니까?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그렇게 결정할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존귀함의 일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 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한 사람들

단테의 <신곡> 아시지요? 단테의 저승여행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다수를 따라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니다. 단테가 저승을 방문할 때 첫째로 간 곳이 지옥인데 지옥문을 들어서자마자 아직 진짜 지옥은 시작되기 전인데 캄캄한 공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마치 회오리바람에 모래가 날리듯 때를 지어 쓸려 다니며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테가 놀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하고 길잡이한테 물었더니 명예도 오명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크게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누굴 죽인단든지 하는 큰 죄도 짓지 않은,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하게 살았다 싶은 사람들이 고통의 자리인 지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그렇게 영원히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마디로 지성의 선, 곧 알고 생각하는 능력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 그저 다수를 따라 적당히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돈을 따라 이리 쫓리고 또 어느 경우는 쾌락을 좇아 저리 달려가고 또 많은 경우 만사가 귀찮아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욕심 따라 이익 따라 재미 따라 휩쓸려 다니다 보니 저승에 와셔도 바람에 날리는 모래처럼 영원히 허공을 날아다니며 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테가 <신곡>을 왜 썼을까요? 단테는 십사세기 초 사람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던 시절입니다. 교황이 첩을 거느리고 사생아도 낳고 그 사생아한테 교황 자리를 세습하고 교황이 제 나라도 갖고 있어서 다른 왕들하고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베드로의 후계자로 천국 열쇠를 가졌다 하면서 말을 안 들으면 지옥에 보낼 거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교인들은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할 밖에는요. 아는 건 없고 겁은 나고, 그럴 때 기댈 수 있는 좋

은 원칙이 바로 다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튀지 말자, 남 하는 대로만 하자, 그래야 지옥에 안 가고 무사히 천국으로 갈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그렇게 적당히 산 사람을 지옥에도 못 들어가 지옥 입구에서 영원히 벌을 받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새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면서 살았을 때 그렇게 남들 가는대로 휩쓸려 살았으니 죽어서도 때를 이루어 회오리바람에 날리면서 몸은 벌에게 쏘이고 다리는 구더기에게 물어뜯기는 벌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단테가 지어낸 이야기지요. 말하고 싶은 게 뭐였겠습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다수를 따라갑니다. 아니, 가만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생각을 해야 산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야 산다고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일어난 게 르네상스라는 엄청난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르네상스가 그렇게 한 이백 년 이어진 다음 나타난 두 사람이 루터요 칼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좁은 문, 좁은 길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단테의 생각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좁고 찾는 이도 적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 하십니다. 반대로 넓은 문, 넓은 길은 크고 넓으니 그리 가는 사람은 많지만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수를 따르는 삶, 곧 모두가 가는 길로 무난하게 가는 삶은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좁은 문이고 뭐가 좁은 길입니까? 일단 좁다 하셨으니 들어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문이 넓다면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좁으니 어디 있는지 찾아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좁으니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 길도 좁아서 그 길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넓은 문은 들어가기 쉬워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입니다. 쉽게 들어갑니다. 예를 안 써도, 어디 있는지 안 알아봐도, 그저 사람들의 무리에 휩쓸리다 보면 저절로 들어가지는 그런 문입니다. 문이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둘밖에 없다면, 둘 가운데 하나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면,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가만있으면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 들어가면 또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다수가 이용하는 길,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위로도 받고 힘도 나 든든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왜 마음 든든합니까? 숫자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설마 잘못되겠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 이 길이 멸망으로 갈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든든하지요.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람의 본성, 곧 죄로 물든 마음에 꼭 맞는 문이요 길입니다. 복잡한 세상 생각할 것도 많고 따져볼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각하기 귀찮아 남들 하는 대로 따라 가다 보니 척척 맞아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바라는 그게 남도 다 바라는 거니까요. 내 생각을 남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아무한테나 넘기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수가 모인 곳에 떠넘깁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니 나를 대신해 생각하고 고민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수가 따로 있어 내가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모여 다수를 이룬 겁니다. 특별한 문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들어가는 문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길입니다.

싸우며 가는 길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다 잘 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좁은 이유는 세상이 가르치는 것, 곧 온 세상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세상과 다르고 때로는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문도 좁고 길도 좁습니다. 별로 인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끝에 생명이 있으니 가지요. 넓은 길로 가면 갈 때는 좋지만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파멸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삽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뭐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길이 좁아 걷기 힘들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좁은 길이 힘든 이유는 저기 보이는 곳에 넓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함께 있어야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길에는 사람도 많고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웃으며 즐겁게들 갑니다. 즐거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이 가니까 즐겁습니다. 수가 많으면 내가 낸 헛소문에 나도 속을 지경인데 많이 배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같이 걷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설령 지옥에 간다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간다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넓은 길에는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에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이따금 길벗을 만나긴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어두운 그늘이 늘 있습니다. 가다가 발만 조금 삐끗해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걱정이 됩니다. 이 길이 맞나, 혹 내가 잘못 알았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싸움은 저기 보이는 넓은 길, 그 길을 걷는 많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하게 됩니다.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자신, 그래서 생각하기 싫고 웬만하면 남들 가는 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 가고 싶은 내 본성, 그것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값진 선물을 포기하고 그저 동물처럼 낮아지고 싶은 본성, 곧 오늘도 마귀가 우리 마음의 귀에 속삭이는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은 싸우며 가야 되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

어떻게 해야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생각할 줄 압니다. 계산도 잘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내용이 다릅니다.

첫째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오늘도 자녀 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마 6:28).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보라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지요. 차근차근 새겨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 한 마리,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입는 일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떼를 지어 물려가는 대신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별로 인기 없는 길이지요. 하지만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로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를 부인한 뒤 닭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울었더라” (막 14:72).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떼 지어 가는 길에는 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 인정하면 바보가 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좁은 길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셋째로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생각해야 됩니다. “룻의 처를 생각하라” (눅 17:32).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은 우리 생각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일을 거울삼아 어떤 게 옳은지 어느 길이 좁은 길인지 바로 알고 그리 가야 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롬 8:5). 어느 길이 육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어느 길이 영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인지 잘 생각해서 정확하게 알고 생명 있는 거기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황금률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남이 해 주었으면 하는 그대로 남에게 하는 것, 곧 내가 이웃에게 하는 그대로 하나님도 나에게 하실 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곧 좁은 길입니다. 그런 삶은 “그러므로” 곧 구하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생각하지 않고서 “그러므로”가 안 나오지요. 황금률은 성경의 요약이라 하셨습니다. 생각하면서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를 주신 뜻

그런데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아 주셨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좁은 길인 요 적은 무리지만 좁은 길을 가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길벗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다 함께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길동무지요. 모여서 서로 힘도 주고 위로도 나누고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도 서로 나누지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진 거짓 확신이 아니라 참 확신을 서로 나누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다수를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수결로 지도자를 뽑았으면 우리도 따라야지요. 온라인으로 물건 살 때는 상품 평가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공부에 취미가 있는 자녀라면 훌륭한 통계학자로 길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는 많은 수가 안전하다는 이 원칙은 이 세상을 사는 데만, 그것도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갈 때는 아무 도움이 못 되는,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백 년 전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때 사람들은 타이타닉은 바다에 안 빠질 줄 알았습니다. 첨단 기술이라 그

랬을까요? 아닙니다. 워낙 크니까, 워낙 많은 사람이 났으니까,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수의 힘에 속은 거지요. 영화를 보니까 배를 설게한 사람이 그럽디다. “타이타닉은 배다. 죄로 만들었다. 빙산을 들이받아 구멍이 났으면 반드시 가라앉는다.” 단테를 읽고 배울 점도 있고 영화를 보고 배울 점도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요.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 생각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요즘도 교회가 영망 아닙니까? 중세보다 더합니다. 골치 아프니까 모르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재물욕, 권력욕, 성범죄, 어마어마한 예배당, 목회세습, 돈과 이권이 얼마나 많이 오가는지, 찬송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경호원 부르고 하여간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목사한테 축복권 저주권이 있다 하면서 교황처럼 교인들 겁주는 목사도 아직 있습니다. 목사가 간통죄를 지어도, 온갖 상스러운 소리를 하고 다녀도, 남들이 우르르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 갑니다. 넓은 길은 워낙 넓어 이 교회까지 뻗쳐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좌우되는 교회라면 넓은 길일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좁은 길은 아니기 때문에 꼭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밥 한 술 뜨다가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혹 죄를 짓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생각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 그런 걸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생각하면서 넓은 길은 피해 좁은 길로만 걸어가도록 돕는 게 우리 할 일이라 믿습니다. 그게 또한 성령으로 사는 길이겠지요. (권수경 목사)